

## "사람 포즈에 시대상이 담겨 있죠"

프랑스 대표 조각가 그자비에 베이앙

친구·이웃 등 평범한 사람 모델로  
3D 스캐너 작업으로 추상조각 빚어  
'유령풍경' 등 20여점 국내 전시

전지현 기자    입력 : 2019.01.15 17:01:27

서울 성북동 313아트프로젝트 갤러리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남자가 버티고 있었다. 키 2m가 넘는 장신으로 시야를 압도한다. 프랑스 대표 작가 그자비에 베이앙(56)이 친구를 모델로 만든 조각 '마크'다.

그런데 왜 이목구비 등 세밀한 묘사 없이 실루엣만 있을까.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눈·코·입 등 디테일이 아니라 사람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멀리서 보면 기본 형태만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인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굴 생김새보다는 동작(포즈)에 중점을 둔다. 시대상과 문화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작가가 베니스에 살 때 이웃이었던 30대 세르비아 여성 조각 '나타샤'는 남자처럼 느껴진다. 짝 벌린 두 다리에 팔을 올린 채 턱을 괴고 있다.

베이앙은 "예전에는 여자가 저렇게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본다. 포즈에서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나타샤는 현대 여성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 조각가 그자비에 베이앙이 그의 친구를 조각한 '마크' 옆에서 있다.

서 있는 여성 조각 '야나' 역시 위풍당당하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 때 모델

이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거리를 헤매 찾아낸 여성이다.

작가는 "3D 스캐너로 모델을 본뜨는 작업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대타를 만났지만 재미있는 조각이 나왔다.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모델에게 힘든 과정"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작업 후에는 재료를 고른다. '마크'는 탄소, '나타샤'는 알루미늄, '야나'는 자작나무로 완성했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양한 길이 있고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는 게 행복해요. 탄소는 인류 역사, 우리 삶에 항상 가까이 있는 원소죠. 다이아몬드도 탄소 결정체예요. 오랜 역사를 지닌 자재로 현대적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재미있어요. 친환경적이고 살아 있던 나무로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도 모험적이죠."

그의 조각은 곡선이 아니라 삼각형 등 직선으로 이뤄져 있다. 미니멀리즘에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조각도 추상화 개념으로 작업해요. 사람 시각이 한정적이어서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각도나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신기하게도 가까이 가서 현미경으로 비추면 모든 대상이 추상적으로 변해요."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 'Ghost Landscape(유령 풍경)' 3점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됐다. 멀리서 보면 구름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무수한 점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 표면에 균일한 구멍을 내 구름 형상을 표현한 평면 작업이다.

그는 신작 20여 점을 성북동 313아트프로젝트 개관전과 청담동 313아트프로젝트에 펼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걸린 대형 모빌과 달리 실내 공간에 적합한 작품들이다. 5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설치 작업 'Rays(빛)',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Studio Venezia(스튜디오 베네치아)'의 음악적 장면을 조각으로 재현한 'Studio Line(스튜디오 라인)', 금으로 조각한 'Shark(상어)' 등이 전시된다.

베이앙은 2009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프랑스 대표 작가로 부상했다. 음악, 미술, 건축이 조합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파리 팔레 드 도쿄(20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4), 파리 퐁피두센터 (2015) 등에서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2월 15일까지.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